



(한기주)

마운드에 '보직 파괴' 바람

KIA 한기주, 5선발·미들맨 겸직 SK 조웅천 마무리 → 선발로 전환

최근 프로야구 마운드에서 선발요원이 마무리로 깜짝 등판하는가 하면 구원투수가 선발로 등장하는 등 예상밖의 보직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역대 신인 사상 최고 계약금(10억원)을 받고 올해 KIA 유니폼을 입은 '황금팔' 한기주는 3선발에서 5선발로 자리를 변경하고 마무리로 등판해 첫 구원승을 올렸다.

한기주는 지난 21일 LG전에서 3-3으로 맞선 연장 10회초 1사 1루에 마운드에 올라 2명의 타자를 범타 처리하고 이윤규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투수가 됐다.

한기주의 불펜 기용은 지난 18일 현대전 선발 등판에서 1이닝 5안타 3실점의 부진을 보인 뒤 "자주 던져 프로의 감각을 익히고 싶다"는 자신의 자청에 따른 것이다.

한기주는 오는 27일 SK전에 선발로 출전할 예정이며 주중에 한 두차례 중간계투로 나설 예정이다.

한기주와는 조금 다른 사례지만 지난 20일 롯데의 '전국구 에이스' 손민환은 삼성전에서 1-0으로 앞선 8회 1사 1, 2루에 등판, 1.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켜냈다. 올 시즌 첫 세이브도 기록했다.

롯데가 6연패 및 원정 17연패를 당한 뒤 팬들 앞에서 공개 청문회까지 가졌던 강병철 감독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들과는 반대로 마무리에서 선발로 깜짝 등판한 경우도 있다.

SK의 마무리 투수 조웅천(35)은 지난 21일 현대전에서 선발투수로 보직을 변경해 등판했다.

선발전에 포진했던 채병용의 팔꿈치 통증으로 빠진 공백을 메우는 땀실시 출전이었다.

조웅천은 4이닝을 3안타 4실점(1자책점)으로 막

았고 9연승 중이던 현대에 11-5 승리를 거두는 발판이 됐다. 이들 3명의 보직 전환은 선발-중간-마무리로 철저히 분업화된 현대 야구의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임시변통의 성격이 짙다.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연패와 부진에 빠진 팀들이 일단 보직 전환으로 재미를 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직 파괴는 투수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팀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손익 계산서를 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병헌아 미안”

광주일보 출신 빅리거 선발 맞대결

선후배 모두 잘 던졌는데

사상 첫 한국인 빅리거 선발 맞대결에서 수비진의 지원을 받은 광주일보 출신 선배 서재용(29·LA 다저스)이 후배 김병헌(27·콜로라도 로키스)에 판정승을 거두고 시즌 2승과 홈구장 첫 승을 동시에 달성했다.

서재용은 23일(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다저스-콜로라도전에서 상대 선발로 나선 김병헌과 선의의 경쟁을 펼쳤고 팀이 6-1로 이기면서 값진 2승째를 따냈다.

서재용은 이날 7이닝 동안 84개를 뿌렸고 안타 6개를 내줬

▶서재용 7이닝 1실점 '2승'...판정승

60이닝 1자책 호투 불구 패 김병헌▶

지만 1실점(비자책)으로 호투한 뒤 4-1로 앞선 8회 마운드를 내려갔다.

반면 김병헌도 6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1자책)으로 호투, 지난 17일 다저스전에 이은 2연승을 바라왔으나 타선 침묵으로 시즌 2패(2승)째를 떠안았다.

각각 '컨트롤 아티스트', '한국산 핵잠수함'이라는 애칭으로 통하는 이들은 장기인 지구력과 공격적인 피칭을 펼쳤고 승부의 추는 수비진의 도움으로 안정을 찾은 서재용쪽으로 기울었다. 힘을 얻은 서재용은 4회부터 7회까지 특별한 위기가 없이 무실점으로 잘 던졌다.

반면 1.2회를 무실점으로 넘긴 김병헌은 3회 1사 후 실책 하나에 흔들렸다.

다저스는 7회 밀어내기 1점을 도망간 뒤 8회 2점을 추가, 6-1로 이겼다. /최재호기자 lucky@kwangju.co.kr



“괜찮아 선배”

광주 상무 '첫 승 목마름' 푸나

오늘 안방서 대구FC전

프로축구 광주 상무가 '전적' 대구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삼성 하우젠컵대회 첫 승을 노린다.

광주는 24일 오후 7시 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구FC와 삼성 하우젠컵 2006 주중 4라운드 경기를 벌인다.

23일 현재 최하위권인 11위(1무2패)에 랭크된 광주는 올 시즌 홈경기(7전 2승 4무 1패)만큼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첫 승 전망이 낙관적이다. 특히 최근 홈 6경기는 연속 무패중이다.

광주는 박요셉, 박용호, 김광석의 안정된 수비라인을 바탕으로 남궁도, 차철호를 투

톱으로 내세워 대구를 첫 승의 제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렇다고 이번 홈경기가 그리 편한 것만은 아니다.

광주는 지난 전기리그에서 주전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김광석, 최종범, 이진호가 부상으로 빠졌고, 박주성은 경교누적으로 인한 결장으로 뛰지 못하는 등 전력 누수 현상을 겪고 있다.

이밖에 1승 2패로 9위에 랭크된 전남드래곤즈는 이날 오후 7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중위권 다툼을 벌인다.

한편 광주는 5월 한달동안 광주 홈경기에 한해 어린이(초등학생), 교사, 5·18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무료입장 행사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LPGA 코닝클래식 내일 개막

김미현 등 한국선수 5명 출전

25일(한국시간) 밤부터 미국 뉴욕주 코닝의 코닝골프장(파72·6천62야드)에서 나흘간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코닝클래식에서 한국 선수끼리 우승컵의 향방을 다툰 전망이다.

총상금이 120만 달러인 이 대회에는 상금 랭킹 20위 이내 선수 가운데 9명만 출전하는 가운데 그나마 5명이 한국 선수로 채워졌다. 게다가 상금랭킹 1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2위 카리 웹(호주) 등 상위 랭커가 모두 불참한다.

상금 7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마저 출전 신청을 내지 않아 상금 3위 김미현(29·KTF)을 비롯해 6위 한희원(28·힐라코리아), 8위 이선화(20·CJ), 12위 이마나(25·KTF), 14위 장정(26·기업은행) 등 한국 선수들끼리 우승 다툼이 예상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4일(수)

▲메이저리그(뉴욕Y-보스턴)(07 : 55·Xports), <세인트루이스-샌프란시스코>(11 : 05·Xports)

▲NBA 동부지구 결승1차전(09 : 00·MBC ESPN)

▲여자농구프리리그(우리은행-신세계)(13 : 50·MBC), <삼성생명-금호생명>(16 : 00·KBS SKY SPORTS)

▲협회장기 전국 남녀중고농구대회 남고부 결승(14 : 50·SBS스포츠)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니혼햄)(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한화)(18 : 00·KBS SKY SPORTS), <LG-SK>(18 : 30·MBC ESPN)

25일(목)

▲메이저리그(클리블랜드-미네소타)(02 : 00·Xports)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황재한 아내 이야기!

바람둥이 남편 덕에 6억 황재한 아내 이야기! 이 이야기는... (The text is partially obscured and difficult to read in detail, but it appears to be a sensational headline for a story about a woman who became wealthy through her husband's infidelity.)

Advertisement for a service, featuring a phone number 060-700-3658 and a list of services or products. The text is dense and includes various details about the offering.

U-SSAN 가격까지 투박함을 벗었다! 에어쿠션 트래킹화 29,800원!

Advertisement for U-SSAN shoes,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sneaker and promotional text. The ad highlights the shoe's features and price,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retailer.